

생애사 쓰기에 나타나는 ‘자기돌봄’과 ‘이야기 정체성’

— 경상북도 노인전문간호센터 생애사 쓰기 사례를 중심으로

김수정*

[초 록]

본 연구에서 진행한 생애사 쓰기는 글 속에 서술 대상의 생애와 서술 대상을 바라보는 서술자의 시선이 함께 담기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글의 전체적인 틀을 ‘기억-시선-현재’로 정하여, ‘기억’에는 서술 대상의 생애를, ‘시선’에는 서술자를 포함한 주변인들이 서술 대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현재’에는 서술자와 서술 대상자의 현재를 다루도록 안내하였다. 서술자의 삶과 서술 대상의 연결고리를 찾아 한 편의 글을 완성하기까지 글쓰기 과정에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관찰 기록하였으며 쓰기 결과물, 인터뷰 자료 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야기 정체성’과 ‘자기돌봄’에 주목하여 생애사 쓰기의 의미를 찾아보았다. 우선 서술자가 서술 대상에 대한 이야기

* 경남대학교 국어교육과 조교수

주제어: 생애사 쓰기, 자전적 글쓰기, 이야기 정체성, 자기돌봄, 어르신 생애사
Writing Life History, Autobiographical Writing, Narrative Identity, Self-Care,
Life History of the Elderly

를 다루면서 동시에 자신의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는데, 이야기의 대상이 ‘나’에서 ‘어르신’으로 전환하는 과정들을 통해 서술자와 서술 대상의 이야기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언어와 기억을 상실해 가고 있는 서술 대상의 삶이 서술자의 이야기를 통해 정체성을 회복해 나가는 의미 있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서술자가 대상과의 관계를 통해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자기 돌봄’과 치유의 의미를 찾아볼 수 있었다. 서술자는 서술 대상을 통해 회피하거나 돌아보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마주하고 자신이 맺고 있는 관계와 자신에 대해 알아가는 의미 있는 경험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생애사 쓰기 논의가 향후 노인 생애사 쓰기, 인터뷰를 활용한 글쓰기 프로그램 마련에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1. 서론

본 연구는 경상북도 노인전문간호센터에서 진행된 ‘어르신들 생애사 쓰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학교 인문학카운슬링 전공 대학원생 3명의 글과 인터뷰 내용을 대상으로 하여 생애사 쓰기의 방향과 의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해 ○○대학교 인문학카운슬링 전공 대학원생 3명이 인터뷰어가 되어 경상북도 노인전문간호센터에 계신 세 분의 어르신들을 인터뷰어로 정하여 각각 5차례(약 20시간)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어르신들에 대한 인터뷰 후 세 명의 인터뷰어와 연구자가 만나 글쓰기의 방향과 보완해야 할 부분들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완성된 글을 다듬고 편집하였다. 인터뷰는 김찬호 외(2018, p. 8)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일방적인 스토리텔링이 아닌 묻고 답하는 대화 속에서 의외의 발견이 일어난다는 측면에서, 또한 사건이나 경험을 전혀

새로운 각도에서 조명하기도 하고 지나온 발자취와 지금의 현 위치를 제3자의 시선으로 객관화한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들이 어르신들의 생애사를 쓰기 위해 어르신들과 만나고 인터뷰하는 과정, 글쓰기를 완성한 후 나누기 시간을 통해 밝힌 서술자의 생활 변화를 모두 포함하여 참여자들이 한 편의 글을 완성하기까지 과정에 미친 총체적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궁극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지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자기에 대한 글쓰기에서 나아가 타인의 삶을 탐색하면서 이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는 자기 돌봄의 과정을 밝히고자 한다. 이때 글쓰기 대상과 글쓰기 주체가 글쓰기 과정에 어떻게 관여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생애사 쓰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참여자들의 글쓰기 과정 및 완성된 글쓰기, 심층 인터뷰를 살펴봄으로써 타인의 삶에 대한 생애사 쓰기가 글쓰기 주체와 글쓰기 대상의 이야기 정체성에 어떻게 관여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¹⁾

1) 본 연구는 ‘어르신 생애사 쓰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인문학카운슬링 전공 대학원생 3인의 글과 인터뷰를 대상으로 한 사례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 대학원생 3인은 인터뷰어이자 서술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대학원생 3인이 인터뷰한 ‘경상북도 노인전문간호센터’에 계신 어르신 4인은 인터뷰이이자 서술 대상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참여자, 서술자, 인터뷰어는 대학원생 3인을 지칭하고 있으며, 서술 대상, 인터뷰이는 어르신 4인을 지칭하고 있다. 강조하고자 하는 맥락과 상황에 따라 다르게 표현하였지만 동일한 대상임을 미리 밝혀 두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자전적 글쓰기와 ‘자기 돌봄’

김혜숙(2006)에서 ‘자전적’이라는 단어는 그리스어로 ‘자신’을 의미하는 auto (= self)와 ‘삶’을 의미하는 bios, 그리고 ‘쓰다’의 의미를 지닌 graphie의 합성어에서 연유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생애사 쓰기’는 ‘자전적 글쓰기’, ‘자서전’, ‘자기서사 쓰기’ 등의 용어와 혼용되어 쓰이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김수정·정정순(2020) 논의에서 밝힌 바와 같이 자전적 글쓰기를 상위 범주로 보고 구체적인 적용 방식에 있어 ‘자기서사’, ‘생애사’ 등을 방법론적으로 바라보고자 한다.

자전적 글쓰기와 관련하여 이경희 외(2008), 지행중 외(2011), 정승일 외(2016) 등의 논의를 참고해 볼 수 있는데 이들은 자전적 글쓰기를 삶에서 중요한 사건이나 위기를 돌아보고 현재의 가치관을 중심으로 재평가하면서 그것이 갖는 의미에 주목하고 있다. 반면 Brady & Sky(2003), Kerka (1996)에서는 성인들의 일기 쓰기 활동이 가지는 긍정적인 의미들을 밝히며 자아 성찰의 효과를 강조하고 있다.

Michelson (2011), 김수정·정정순(2020)에서는 이러한 자전적 글쓰기에 대한 연구들이 쓰기 내용으로서의 ‘자기’(self)에만 초점을 맞추어 그 의미를 분석함으로써 쓰기교육에서 이루어지는 주체들 간의 상호작용에는 소홀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타인과의 소통, 상호작용 그리고 사회·문화적 맥락 등이 자신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과 성찰에 이르게 하는 중요한 변인들이면서 동시에 그 과정 자체가 지니는 교육적 효과 또한 중요하다는 논의들(Alheit (2009), Alheit & Dausien (2007))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신다영 (2015), p. 5). 실제로 이 연구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사례 또한 타인과의 인터뷰 과

정에서 글쓰기 주체와 글쓰기 대상, 글쓰기 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쓰기의 방향을 재조정하고 점검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는 김수정·정정순(2020)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이 학습의 과정 및 결과에 중요한 변인이 된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서술자와 서술 대상이 글을 쓰는 과정에서 어떤 경험을 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경험이 글쓰기로 연결되는 과정, 글쓰기 완성 후 삶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였다. 이는 선행 연구들에서도 제시하였듯이 ‘자기 이해’와 ‘자기 성찰’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Michelson (2011)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자전적 글쓰기는 고정된 ‘나’가 존재한다는 자아 개념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과 사회 문화적 이데올로기에 따라 고정된 방식으로 자기를 재현하는 것이라고 보는 한계가 있다. 이는 자전적 글쓰기의 주체가 ‘나’일 경우 ‘진짜 나’라는 자아가 존재한다는 환상을 재생산하며 동시에 글쓰기 주체가 규정한 ‘진짜 나’의 서사에 부합되지 않는 삶의 경험들이 배척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제3의 타인’을 통해 삶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대로의 생애를 서술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자 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는 서술자의 눈에 비친 타자로서의 대상, 그리고 그 대상을 바라보는 주변인들과의 인터뷰를 토대로 타자적 시선과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는 자신의 시선에 주목하였다. 즉, 대상과 그 대상의 가장 가까운 지인, 서술자의 시선을 통해 한 편의 글을 완성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서술주체의 감정 변화와 글쓰기에 나타나는 대상에 대한 감정 변화에 주목하였는데 자신을 철저히 감추어 두었던 서술 주체가 서술 대상에게 마음을 열어가면서 자신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서술 대상의 생각과 사건들에 주목하면서 동시에 서술 주체의 생각과 사건을 연결하고 자기 자신에게 몰두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김수정·정정순(2020)에서 제시한 ‘자기 돌봄’과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타자적 시선에 의해 규정된 제도적 의미에 통합된

자아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나답게 내버려두고 인정하고 승인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김세희(2018, p. 74)에서는 자기를 돌보기 위해서는 자기로의 시선 전환이 필요하고, 시선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회피하거나 돌아보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마주하기 위한 일종의 실존적 결단이 요청된다고 밝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타인에게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고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서술 주체가 대상과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이 맺고 있는 관계와 자기 자신에 대해 시선을 전환하게 되는 모습에 주목하였다. 또한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의 일부로서 타인에 대한 인식이 자기에 대한 인식으로 전환되는 과정이 자기 돌봄의 연장선에 있다고 보았다. 이는 김수정·정순순(2020)에서 밝히는 자신과 삶을 관조하는 것을 넘어 자기를 돌보는 구체적인 행위이고 또한 이를 통해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정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2. 이야기 정체성과 타자로서의 서술주체

성인 글쓰기에서 나타나는 자전적 글쓰기는 주로 서술자가 자신의 삶에 대해 돌아보며 성찰하는 글쓰기가 주를 이룬다. 그러나 Michelson (2011)에서도 밝혔듯이 자전적 글쓰기의 경우 ‘진짜 나’라는 자아가 존재한다는 환상을 재생산하여 ‘진짜 나’의 서사에 통합될 수 없는 삶의 경험들을 자전적 글쓰기 과정에서 배척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생애사 쓰기에서 인터뷰어이자 타자로서의 서술자, 인터뷰이이자 글쓰기의 대상이 갖는 의미를 토대로 리콥르의 ‘이야기 정체성’과 ‘타자로서 자기 자신’에 주목하였다. 리콥르는 ‘누구에 대한 무엇을 설명하는가’에 따라 인물의 정체성 형성의 의미가 드러난다고 밝히고 있다.

폴 리콥르는 <타자로서 자기자신>에서 개인의 정체성을 ‘동일-정체

성’(*identité-idem*), ‘자기-정체성’(*identité-ipse*) 두 종류의 정체성으로 분류하고 있다. 리콥르에 따르면 동일성과 자기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체성에 변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둘을 구별해야 한다고 한다. 즉, 인간은 탄생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외모의 변화를 겪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누군가로 간주되는 동일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시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김아무개’라는 사람을 ‘김아무개’로 인식하게 해주는 무언가에 대하여 리콥르는 ‘시간속지속’(*permanence dans le temps*)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설명을 진행한다. 리콥르는 ‘시각속지속’에서 ‘성격’과 ‘약속이행’(*le caractère et la parole tenue*)이라는 두 가지 모델을 제시한다. 이때 ‘성격’은 그 사람만이 지닌 변별적인 특징을 의미하며, ‘약속이행’은 어떠한 상황에도 변화지 않으려고 하는 ‘자기고수’(*maintien de soi*)이다.

리콥르에 따르면 ‘이야기 정체성’은 ‘성격의 동일성’과 ‘자기고수’ 사이에 매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야기 정체성’(*identité narrative*)이란 ‘한 인간 존재가 이야기 기능의 매개 덕분에 얻게 되는 정체성’을 일컫는데, 이기연(2014)에서는 ‘한 주체는 자기 자신에 관해서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이야기에서 자기를 인식하게 된다.’고 밝히고 있다. 즉, ‘이야기 정체성’은 이야기 속에서 끊임없이 생성되고 해체되는 정체성이다.

김은정(2020, p. 43)에서는 치매 모티프 소설을 토대로 리콥르의 정체성 논의에 따라 ‘이야기 정체성’을 분석하고 있다. 치매를 주제로 한 소설은 치매에 걸려 정체성이 분열된 인물의 정체성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서사 속에서 치매에 걸린 인물은 기억과 언어를 점차 상실해 가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이야기를 형성하는 서술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 본 연구에서 인터뷰이이자 서술의 대상인 세 분의 어르신 역시 치매와 노환으로 인하여 스스로 자기 이야기를 형성하는 서술의 주체가 될 수 없었으나 의미 있는 타자에 의해 ‘이야기 정체성’을 형성해

간다는 측면에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술 대상의 이야기 정체성을 형성해 주는 ‘타자로서의 서술자’에 주목할 수 있다. 리콰르는 자기 자신의 ‘자기성’은 매우 내밀한 단계에서 ‘타자성’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한쪽은 다른 한쪽 없이 생각되어지지 않으며 오히려 한쪽이 다른 한쪽으로 이동한다고 밝히고 있다(Paul Ricoeur (1990) · 김용권 역(2006), p. 17). 이에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타자로서의 서술자’는 서술 대상의 이야기 정체성을 만들어주는 중요한 타자이자 동시에 스스로의 이야기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자아라고 할 수 있다.

타자로서 대상의 삶을 들여다보고 대상에 대하여 글을 쓰는 행위는 앞서 언급한 김세희(2018)의 실존적 결단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글쓰기 대상과의 인터뷰를 통해 대상을 알아가고 대상의 관계를 파악해 가면서 동시에 서술자의 내밀한 단계에 있는 대상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다. 즉 타자의 삶을 통해 자기 안에 있는 타자를 발견하고 타자를 알아가는 동시에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다. 이는 결국 앞서 언급한 ‘자기 돌봄’의 실천이자 김수정 · 정정순(2020)에서 밝힌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정화하며 변모시키는 윤리적 실천과 연결되는 것이다.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유기웅 외(2018)에서 제시하고 있듯이 사례 연구는 적은 수의 사례에 대하여 집중적이고 구체적인 탐구를 수행하는 연구 방법으로 실제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는 현상이나 사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하

고 해석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에서 초점을 맞출 사례는 2020년 8월 1일부터 8월 21일까지 경상북도 노인전문간호센터에서 진행된 ‘어르신 생애사 쓰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참가자들의 글쓰기 과정 및 그 결과물이다. 이때 주목할 점은 언어와 기억을 점차 잃어가고 있는 어르신 3인을 대상으로 참여자들이 인터뷰를 통해 이야기를 구성해 간다는 것이다. 즉 ‘대상에 대한 글쓰기’ 과정 및 그 결과물에서 ‘요양원 어르신’과 ‘실습생’이라는 객관적이고 타자적인 관계가 어떻게 각자의 삶과 밀착되어 나타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 사례연구의 대상이 되는 사례가 지니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20년 경상북도 노인전문간호센터에서 진행된 ‘생애사 및 이야기치료’ 프로그램 참여자의 참여 과정 및 글쓰기 결과물이 연구대상이다. 이때 주된 연구방법으로 인터뷰를 활용하였으며 서술 대상이 되는 3인의 어르신과 서술 주체인 대학원생 3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둘째, 이 프로그램에 참가한 서술 대상은 언어와 기억을 잃어가고 계신 세 분의 어르신으로 최근 고령화라는 사회적 관심사와 연결되어 있다. 또한 경상북도에서 관찰하고 있는 경북 노인전문간호센터와 ○○대학교 인문카운슬링 대학원에서 마련한 프로그램이라는 차원에서 고령화 평생교육이라는 측면에서 유의미성을 지닌다.

셋째, 기존의 생애사 글쓰기는 일반적인 자기 고백적 글쓰기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타인의 생애사를 서술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서술자가 자기 치유 및 자기 돌봄에 이르게 된다.

넷째, 생애사 글쓰기의 대상이 되는 어르신들의 기억, 복지사, 가족들이 바라보는 대상에 대한 기억들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조합하는 과정에서 이야기 정체성을 통한 대상과 서술자의 삶의 의미를 탐색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사례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글쓰기 프로토콜, 대상과

주변인들에 대한 인터뷰 자료, 글쓰기 결과물 등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서술자가 대상을 의미화하는 과정에서 ‘자기 돌봄’과 ‘이야기 정체성’의 의미를 해석해보고자 한다.

3.2. 연구절차 및 자료수집

경상북도청 소속기관인 ‘경상북도 노인전문간호센터’에서는 2020년 8월 1일부터 8월 21일까지 약 20시간에 걸쳐 ‘○○대학교 인문카운슬링 전공’ 대학원생 실습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어르신들 생애사 및 이야기치료’를 시행하였다.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진행에 대하여 수퍼바이저로 활동한 센터장 1인, 사무국장 1인과 연구자가 함께 계획하였으며 전반적인 ‘생애사 쓰기’ 진행은 연구자가 맡았으며, 참여자들의 참여 과정과 태도, 글쓰기 과정과 심층 면담에서 이루어지는 분위기를 관찰하고 기록하여 기초 자료로 활용하였다. 매 주 2회 참여자들은 어르신 인터뷰 시간을 가졌으며 일주일에 1회 참여자들과 연구자의 개별 면담 및 나누기 시간을 통해 글쓰기의 방향과 인터뷰 과정을 조정해 나갔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한 상호 소통으로 참여자 간의 충분한 라포(rapport)를 형성하였으며 심층 면담을 위한 준비 자료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면담을 활용한 자료 수집에 집중하였다. 이때 면담은 연구자와 서술자의 면담, 서술자와 서술 대상에 대한 면담, 연구자와 서술 대상에 대한 면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²⁾ 본 연구에서는 심층 면담, 글쓰기 과정 및 결과물을 보여주는 인공물 수집을 중심으로

2) 조영달(2005)에서는 면담을 활용한 자료 수집의 경우 자신의 내면을 타인에게 털어놓는 것에 대한 심리적 저항감과 이에 따른 자기 규제의 모습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제시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 서술자, 서술 대상 간의 ‘라포’ 형성에 많은 주의를 기울였으며 참여 관찰과 참여자 분석, 인터뷰 분석에서 수합된 정보를 중심으로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다.

사례연구를 하였다. 심층 면담에 앞서 연구 참여자인 서술자와 서술 대상에게 연구 목적과 취지를 알리고 사전 동의를 얻어 면담 내용을 전사하였다. 연구 과정에서 습득된 정보는 연구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정보 보호 등의 연구 윤리를 준수하였다.

심층 면담은 글쓰기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서술자와 서술 대상의 인터뷰, 인터뷰 전후 글쓰기에 나타나는 변화 양상에 초점을 두었으며 수집한 자료들을 분석하기 위하여 면담 녹취록, 활동지, 활동 후 피드백, 글쓰기 결과물을 반복해서 읽고 연구 주제를 초점화하였다.

총 10회 80시간 진행된 실습 기간 중에 대상과의 인터뷰는 개개인 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략 20시간 정도 이루어졌으며 연구자는 총 7회 21시간 동안 글쓰기와 인터뷰 방향에 대하여 서술자와 면담 시간을 가졌다. 21시간 가운데 15시간은 서술자 3인과 연구자가 함께 나누기 시간을 가졌으며 6시간은 서술자 1인과 연구자의 개별 면담으로 글쓰기와 인터뷰 방향을 조율하는 시간을 가졌다.

글쓰기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룬 점은 서술자들이 함께 나누기를 통해 서술 대상과 서술 대상의 주변인에 대하여 공유하는 시간, 글쓰기에 대상과 함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실습생 신분으로 참여하였던 서술자들은 실습을 위해 각자 다섯 분의 어른을 배정받았다. 15분의 어르신들은 모두 치매 혹은 뇌졸중 등을 앓고 있었는데 이 가운데 대화가 비교적 원활하고 서술자와의 라포 형성이 가장 잘 된 어르신을 선정하여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그분의 삶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글쓰기를 진행하였다. <표 1>은 서술자 및 서술 대상자의 정보이다.

글쓰기에는 기본적으로 ‘기억-현재-시선’으로 나누어 ‘기억’에서는 어르신들의 과거 생애, ‘시선’은 어르신 주변인, 서술자가 바라보는 어르신의 모습, ‘현재’는 어르신과 서술자의 관계가 드러나도록 안내하였다. 이를 통해 어르신의 생애를 글로 만들어 가는 동시에 자신의 생

〈표 1〉 서술자 및 서술 대상자 정보

번호	서술자	성별	연령	주요정보	서술 대상자	연령	주요정보
1	이○○	남	40대 후반	인문카운슬링 전공 박사과정	오○○	80대	치매, 무폐
					홍○○	80대	치매
2	정○○	여	20대 후반	인문카운슬링 전공 석사과정	김○○	80대	뇌졸중, 치매
3	정△△	여	20대 후반	인문카운슬링 전공 석사과정	손○○	80대	노환

각과 삶이 드러나도록 안내하였으며, 서술 대상의 삶뿐만 아니라 서술 대상과 서술자가 만들어 가는 현재 관계에도 주목하였다.

4. 연구 결과 및 논의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야기 정체성’이 한 인간 존재가 이야기 기능을 통해 획득하는 ‘자신의 정체성’이라고 할 때, ‘누구의 이야기 정체성인가’가 글에서 핵심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완성된 글에 나타나는 서술자에 주목하였는데 서술자는 글을 통해 서술자 자신과 대상인 어르신, 어르신과 자신의 관계를 표현하였다. 이 장에서는 첫째, 서술자에 의해 만들어지는 서술 대상의 이야기 정체성, 서술자 자신의 이야기 정체성과 자기돌봄, 서술자와 서술 대상의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서술자의 자기돌봄을 중심으로 연구 결과를 밝히고자 한다.

4.1. 서술 대상의 이야기 정체성

서술자에 의해 만들어지는 서술 대상의 이야기 정체성에서 서술자는 인터뷰 초반에서 후반으로 갈수록 태도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인터뷰 초반에는 (1)에서와 같이 서술 대상과의 인터뷰에서 얻은 정보와 서술 대상 주변인과의 인터뷰에서 얻은 정보를 조합하여 보다 사실에 가까운 생애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함을 알 수 있다. 이는 리콤프가 정의한 ‘성격’과 ‘약속이행’ 가운데 어떠한 상황에도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약속이행’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1) 서술자가 만들어가는 서술 대상의 이야기 정체성 초반부

“그때는 뭔지도 모르고…”

“그때는 좋았는지도 몰랐고…”

“그때는 다들 그랬고…”

어땠더라면 할머니의 ‘그때’가 달라졌을까? 할머니의 부모님이 그렇게 일찍 돌아가시지 않았더라면, 시집간 집에 시부모님이라도 버티고 계셨더라면, 남편이 한창때 갑자기 떠나지만 않았더라면 할머니의 ‘그때는’이라는 말이 ‘그때가’로 바뀔 수 있었을까? 할머니의 기억에서 “그때가 참 좋았다”는 말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끈질기게 질문을 던졌지만 아직도 난 그 대답을 기다리고 있다.

(이○○, 별고을(星州) 할머니와 떠나는 기억여행 中)

그러나 인터뷰가 진행되어 갈수록 서술자는 서술 대상이 현재 시점에서 기억하고자 하는 과거의 모습, 현재 관계를 중심으로 서술 대상이 지키고자 하는 관계를 배려하는 모습을 글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ㄱ)에서 딸의 눈치를 보며 난처해하는 어르신의 모습을 보면서 딸이 읽게 될 엄마의 모습을 배려하여 서술 대상의

이야기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모습이 나타나며 (2ㄴ)에서는 어르신의 주변인들이 바라보는 시선과 전혀 다른 모습의 과거를 회상하는 어르신을 보면서 그 또한 어르신의 이야기임을 인정하고 서술하려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그 사람만이 지닌 변별적인 특징인 현재의 ‘성격’에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서술자가 만들어가는 서술 대상의 이야기 정체성 후반부

ㄱ. 전화벨이 울린다. 폴더를 열자, 딸의 이름 세 글자가 뜬다. 우리 엄마 전화에는 ‘우리 딸’이라고 쓰여있는데… 할머니는? 할매 통화가 끝나기를 가만히 듣고만 있다.

“저 저 뭐시고 시집 언제 왔노. 그런 거 물어보러 나왔다. 헤헤헤”

“밑에 소장하고 다 알고 올라와서 괜찮다 안카나”

희미하게 건너편으로 들려온다. “그래도 좀 그르타…”

“야야, 내가 짜장면이 묵고 싶다.”라고 화제를 돌리신다. 역지사지, 나였다면 어땠을까?

나도 한편으로는 유쾌하지만은 않았을 듯하다. 듣고만 있지니, 내심 괜히 내가 서운하고 불편하고, 혼란스럽다. 할머니와 대화하고, 온전히 둘만의 시간을 즐겼던 나는 몰랐다. 이런저런 생각이 많을 수밖에 없는 할머니의 입장을. “좀 그렇다.”라는 따님의 말씀에 마음에 담았던 표현들을 지워간다.

(정○○, -푸른 처마 위 잠뱅이 中)

ㄴ. 할머니께서 교수님한테 하셨던 이야기랑 나한테 하셨던 이야기, 아니면 센터 분들이 알고 있던 이야기에서 할머니의 모습은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었다. 처음에는 충격도 받고, 엄청나게 혼란스러웠다. 할머니는 어떤 분이실까. 내가 어떤 부분을 믿어야 하고, 걸러서 들어야 할까. 생각해보니, 그 모든 것들이 할머니의 모습이다. - 중략 - 나는

그냥 할머니 말만 듣기로 했다. 객관적인 판단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할머니의 말 그대로 적기로 생각했다. 주변에서 들리는 판단이나 편견도 이제는 할머니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퍼즐 같은 것이라고 마음을 먹기로 했다. 할머니는 그냥 손○○ 할머니이다.

(정△△, 그믐달 中)

서술자에 의해 만들어진 서술 대상자의 이야기에는 (3)과 같이 가족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는 김은정(2020)에서 언급한 좀처럼 변화하기 힘든 견고한 가족 이데올로기 구조와 맞닿아 있다. 언어와 기억을 상실해가는 중에도 가족들과의 기억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족과의 끈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서술 대상자들의 이야기 정체성을 읽어낼 수 있었다.

(3) 어르신들의 생애사에 나타난 가족 이야기

“할머니, 지금은 누가 제일 보고 싶으세요?”

할머니는 입버릇처럼 “머… 머…” 하시며 기억을 더듬으며 말을 잇는다.

“큰아들은 종열이고, 작은아들은 재열이고, 딸은 춘희고…”

할머니에게 질문을 하면 웅당 들어야할 레파토리가 있다.

“큰아들은 육십너이고, 작은아들은 육십이고, 딸은 육십돌이고… 큰아들은 울산서 사무보고, 작은아들은 농사짓고…”

(이○○, 별고을(星州) 할머니와 떠나는 기억여행 中)

4.2. 서술자 자신의 이야기 정체성과 자기돌봄

서술자 자신에 대한 이야기에서 서술자는 (4)에서처럼 대상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면서 동시에 자신의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다. 이는 리퀴르의 ‘나는 무엇인가’의 주체인 ‘나’가 어

르신들에 대해 말하고 있는 서술자 ‘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서술자는 (4)에서 어르신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을 발견하며, 외면해 왔던 자신의 문제에 주목하고 깨달아가는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앞서 2장에서 밝힌 타인에게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고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서술 주체가 대상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이 맺고 있는 관계와 자기 자신에 대해 시선을 전환하게 되는 ‘자기돌봄’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4) 글에 나타나는 서술자의 이야기 정체성과 자기돌봄

- ㄱ. 깔꿈이 결벽에 가까워 낮선 곳에서는 음식을 꺼리는 내가 라운딩을 다녀와 책상 위 찰보리빵을 아무렇지 않게 집어들어 개겉스럽게 먹어버리는 내가 놀랍다. 그 순간의 나를 자각하니 괜히 이곳에서 결벽증이 치유된 느낌이 든다.

(정○○, -푸른 처마 위 잠뱅이 中)

이러한 ‘자기돌봄’의 실현은 (5)에서처럼 글의 후기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글 초반에 나타났던 문제의식이 더욱 선명하게 나타나며 문제의식에 대한 불편함을 스스로 수면 위로 노출시키고 있다. 또한 이에 대하여 분석하여 서술하고 스스로 답을 찾고 있다는 점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 온전히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5) 글의 후기에 나타난 서술자의 자기돌봄

- ㄱ. 생애사를 쓰는 내내 떠나지 않는 생각은 ‘지금의 나는 어떤 인생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는가?’였다. 생애사 작업은 더 이상 할머니와 그 가족들에게 의미 있는 일을 해드리는 것이 아니었다. 좋은걸 좋은 줄도 모르고 살고 있는 건 아닐까? 놓아야할 기억을 놓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내내 답답했던 마음은 어쩌면

그것이 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 (이○○, 별고을(星州) 할머니와 떠나는 기억여행 후기 中)
ㄴ. ‘몰라’, ‘그냥’ 에두르는 나. 나이가 들면서 솔직하기 힘들고, 그러면 안 될 것 같다. 나를 다 보이지 않으려 했고, 알려고 하면 거리를 뒀다. 그렇게 익숙해졌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저런 이유를 무의식으로 담아내고 숨겼다. 하지만, 장마철 만나게 된 ○○할머니. 모든 것을 내려둔 당신을 하루하루 바라보며, 나는 입을 열게 되었고 달한마음은 민들레 씨앗처럼 가벼워진다.

(정○○, -푸른 처마 위 잠뱅이 후기 中)

- ㄷ. “할머니랑 선생님이란 많이 닮은 것 같아요”
대구에서 교수님을 따로 만나 스터디를 했을 때, 허를 찔린 기분이 들었다. 할머니는 항상 예쁘고 좋은 이야기만 하시는데, 나도 내 아픈 이야기는 하지 않고 가벼운 이야기만 주로 하게 되는 것 같다. 교수님이 그걸 캐치하셨다는 것에 너무 놀랐고, 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시간을 가졌다.

(정△△, 그림달 후기 中)

(6ㄱ.ㄴ)에서 서술주체는 대상을 통해 자신의 주변인을 떠올리고 대상에 대한 감정 변화를 통해 자신의 중요한 타자와 자신에 몰두하고 있다. 자신을 철저하게 감추어 두었던 서술 주체가 대상에게 마음을 열어가면서 자신에 대해 관심을 갖고 대상의 생각과 사건들에 주목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생각과 사건을 연결하고 자신의 주변 대상과의 관계를 돌아보는 모습을 통해 관계와의 소통을 통한 자기돌봄을 실현하고 있다.

(6) 대상과의 관계를 통한 자기돌봄

- ㄱ. 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간이 깊어지는 동안, 집에서 누워있

는 엄마의 등을 바라는 내 생각과 감정은 많아졌다. 생소하다.

(정○○, -푸른 처마 위 잠뱅이 中)

- ㄴ. 처음 실습 지원을 한 것도 할아버지가 치매에 걸리셨을 때 귀찮아했던 내 모습이 후회되어서이다. 아니 정말 후회하고 있을까? 현재 생각을 가지고 그때로 돌아간다면, 내 행동이 바뀌었을까? 사실 모르겠다. 내가 직접 블랙아웃을 겪어보지 못했다면 할아버지에 대한 깊은 생각도, 이런 실습에 지원할 생각조차도 안 했을 것이다. 지금도 여전히 할아버지가 계셨던 요양병원의 냄새가 코끝에 맴돌고 폐쇄적인 분위기가 생각이 난다. 그래서 나는 내가 이 기억을 극복하지 못할까 봐 두렵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 내 미련들을 조금이나마 털어낼 수 있을까.

(정△△, 그림달 中)

마지막으로 글을 모두 마무리 한 후 사후 심층 인터뷰에서 참여자 3인은 ‘생애사 쓰기’에 대하여 (7ㄱ)의 ‘자기 위로’, (7ㄴ)의 ‘자신에 대한 통찰’, (7ㄷ)의 ‘삶과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을 중심으로 의의를 밝혀 주었다. 세 사람 모두 타인의 삶에 대한 ‘생애사 쓰기’를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세상과 타인을 바라보는 자신의 시각의 변화를 언급해 주었다.

이는 2장에서 다루었던 타인과의 소통, 상호작용 그리고 사회·문화적 맥락 등이 자신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과 성찰에 이르게 하는 중요한 변인들이면서 동시에 그 과정 자체가 지니는 교육적 효과라고 볼 수 있다.

- (7) 사후 심층 인터뷰를 통해 밝힌 ‘생애사 쓰기’의 의의
ㄱ. “생애사 쓰기는 자기 위로인 것 같아요. 글을 써야겠다는

강박과는 다른, 글을 쓰는 중에 (할머니의 삶을 보면서) 그 부분에 대해 나의 주변을 반영하게 되기도 하고 또 돌아보게 되는 거 같나요. 성찰, 반성이 좀 들어가기도 하고, 내가 좀 누그러지는 느낌”

(정○○, 사후 심층 인터뷰 中)

- 나. “자신에 대한 통찰이랄까요. 진로나 미래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였어요. 처음에는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하는 할머니 모습이 좀 힘들었어요. 그런데 현재 저의 힘든 상황들에 할머니들을 떠올리게 되었어요. 공감도 하게 되고, 평소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발견하기도 하고 생각해 내기도 하고 깊이 성찰하게 되었어요.”

(정△△, 사후 심층 인터뷰 中)

- 다. “삶과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을 배우게 되었어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여러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라 각자의 인생이 눈에 보이고 사람마다의 특별함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요양원에서 똑같은 헤어스타일, 똑같은 옷을 입고 생활하지만 정말 특별한 삶의 모습들을 보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집단으로 고정해서 보는 편견이 있는데 글을 쓰면서 한 사람의 개인, 삶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 사후 심층 인터뷰 中)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경상북도 노인전문간호센터에서 진행된 ‘어르신 생애사 쓰기’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생애사 쓰기의 의의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위해 인문카운슬링 전공 대학원생 3명이 인터뷰어가 되고 경상북도 노인전문간호센터에 계신 세 분의 어르신이 인터뷰이가 되

어 약 20시간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 내용들을 정리하는 동시에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글쓰기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진행한 생애사 쓰기는 글 속에 서술 대상의 생애와 서술 대상을 바라보는 서술자의 시선이 함께 담기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글의 전체적인 틀을 ‘기억-시선-현재’로 정하여, ‘기억’에는 서술 대상의 생애를, ‘시선’에는 서술자를 포함한 주변인들이 서술 대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현재’에는 서술자와 서술 대상자의 현재를 다루도록 안내하였다. 서술자의 삶과 서술 대상의 연결고리를 찾아 한 편의 글을 완성하기까지 글쓰기 과정에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관찰 기록하였으며 쓰기 결과물, 인터뷰 자료 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야기 정체성’과 ‘자기돌봄’에 주목하여 생애사 쓰기의 의의를 찾아보았다. 우선 서술자가 서술 대상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면서 동시에 자신의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는데, 이야기의 대상이 ‘나’에서 ‘어르신’으로 전환하는 과정들을 통해 서술자와 서술 대상의 이야기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언어와 기억을 상실해 가고 있는 서술 대상의 삶이 서술자의 이야기를 통해 정체성을 회복해 나가는 의미 있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서술자가 대상과의 관계를 통해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자기돌봄’과 치유의 의미를 찾아볼 수 있었다. 서술자는 서술 대상을 통해 회피하거나 돌아보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마주하고 자신이 맺고 있는 관계와 자신에 대해 알아가는 의미 있는 경험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생애사 쓰기 논의가 향후 노인 생애사 쓰기, 인터뷰를 활용한 글쓰기 프로그램 마련에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논 저】

- 김세희(2018), 「자기 배려로서의 자기 인식과 파레시아: 미셸 푸코의 해석을 중심으로」, 『교육철학연구』 40(1), pp. 69-89.
- 김수정·정정순(2020), 「평생교육 관점에서 생애사 쓰기교육 — 칠곡군교육문화회관 평생교육 사례를 중심으로 —」, 『국어교육』 171, pp. 75-105.
- 김은정(2019), 「이승우 치매 모티프 소설의 이야기 정체성 고찰(I) — <오토바이>, <검은 나무>를 중심으로 —」, 『돈암어문학』 35, pp. 37-67.
- 김은정(2020), 「조경란 치매 서사에 나타난 이야기 정체성」, 『한국문학논총』 85(85), pp. 321-356.
- 김혜숙(2006), 「사전적 글쓰기 교육과정을 통한 여성주의 기독교교육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찬호·고영직·조주은(2018), 『당신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서해문집.
- 신다영(2015), 「사전적 글쓰기 프로그램 참여 성인 여성들의 경험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성우(2004), 『폴 리콥르의 철학』, 철학과 현실사.
- 유기웅 외(2018),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개정판)』, 박영스토리.
- 이기연(2014), 「『이인』의 이야기 정체성」, 『불어불문학연구』 98, 한국불어불문학회, pp. 129-174.
- 이경희·박성희(2008), 「의미구성학습과 노인자서전쓰기교육의 의의」, *Andragogy Today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11(1), pp. 179-199
- 정승일·한준상·조해경(2016), 「노년기 그룹 자서전 쓰기 활동 참여자의 배움에 대한 내러티브 연구」, 『배움학연』 4(1), 한국배움학회, pp. 41-79.
- 조영달(2005), 『제도공간의 질적연구 방법론』, 교육과학사.
- 지행중·한정란·박성희(2011), 「노인자서전 쓰기 교육 프로그램 사례 연구」,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31(2), pp. 223-241.
- Alheit, P. and B. Dausien (2007), “Lifelong Learning and Biography: A Competitive Dynamic Between the Macro and the Micro Level of Education”,

- Linden, W., P. Alheit, A. Andersen, & B. Merrill (Eds.), *Using Biographical and Life History Approaches in the Study of Adult and Lifelong Learning: European Perspectives*, Peter Lang GmbH, pp. 57-70.
- Alheit, P. (2009), 전주성 · 강찬석 · 김태훈 공역(2013), 『현대학습이론』, 학지사, pp. 251-275.
- Brady, E. M. and H. Z. Sky (2003), “Journal Writing Among Older Learners”, *Educational Gerontology* 29(2), pp. 151-163.
- Brady, E. M. (1990), “Redeemed From Time: Learning Through Autobiography”, *Adult Education Quarterly* 41(1), pp. 43-52.
- Elbow, Peter (1973), *Writing Without Teachers*, Oxford University Press.
- Foucault (1984), 심세광 역(2007), 『주체의 해석학』, 동문선.
- Johnson, R. R. (2003), “Autobiography and Transformative Learning: Narrative in Search of Self”, *Journal of Transformative Education* 2(1), pp. 227-244.
- Karpiak, I. E. (2003), “The Ethnographic, the Reflective, and the Uncanny: Three “Tellings” of Autobiography”, *Journal of Transformative Education* 2(1), pp. 99-116.
- Kerka, S. (1996), *Journal writing and adult learning*. Ohio State University: ERIC Clearinghouse on Adult, Career, and Vocational Education. Digest No. 174.
- Michelson, E. (2011), “Autobiography and Selfhood in the Practice of Adult Learning”, *Adult Education Quarterly*, 61(1), pp. 3-21.
- Ricoeur, Paul (1990), 김웅권 번역(2006), 『타자로서 자기 자신』, 동문선.
- Yin, R. K. (2013), 박지연 외 번역(2017), 『질적 연구: 시작부터 완성까지』, 학지사.

원고 접수일: 2021년 4월 2일

심사 완료일: 2021년 5월 11일

게재 확정일: 2021년 5월 11일

ABSTRACT

‘Self-Care’ and ‘Narrative Identity’
in the Writing Life History:

Focusing on the *Writing the Elderly’s Life History* Program at
the Gyeongsangbuk-do Nursing Home

Kim, Su-Jeong*

In this study, the significance of writing a life history was investigated through the *Writing the Elderly’s Life History* program conducted at Gyeongsangbuk-do Nursing Home. For the study, interviews were conducted for about 20 hours; three graduate students majoring in humanities counseling were the interviewers while three elderly people were the interviewees. The writing was conducted through continuous consultation while organizing the interview contents. The writing of the life histories conducted in this study included both the life of the narrative subject and the narrator’s perspective of the narrative subject in the writing. The overall frame of the writing was set as *memory-present-view*; the life of the narrative subject was to be written in the *memory* section; the perspective of surrounding people including the narrator looking at the narrative subject was to be written in the *view* section; and the present status of the narrator and the narrative subject was to be covered in the *present* section.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Korean Education, Kyungnam University

Various factors affecting the writing process from finding a connecting link between the narrator's life and the narrative subject to completing the piece of writing were observed and recorded while the writing results and interview materials were analyzed.

In this study, the significance of writing a life history was examined through factors of the subjects' 'narrative identity' and 'self-care'. First, the narrators could be observed overcoming their own problems through dealing with the story of the narrative subject. This resulted in the subjects' finding their narrative identity and the narrative subject's identity through the process of converting the narrative subject from 'I' to 'the elderly subject'. In addition, it was possible to confirm a meaningful process in which the narrative subject, who had been losing language and memory, recovered their identity through the story of narrator. Next, through their relationship with the narrative subject, the narrator was able to tend to their own self-care and healing, focusing on her/himself. Through the narrative subject, the narrator could confirm the significant experience of getting to know themselves and the relationship they had established by encountering their own, previously avoided or ignored self-image. The discussion on writing a life history presented in this study can be expected to be used to prepare writing programs for the elderly and lifelong education programs for writing in the future.